

한국 유아의 자기인식 발달 궤도: 거울 자기인식과 신체 기반 자기인식 비교

Received: October 14, 2025
Revised: November 16, 2025
Accepted: November 24, 2025

김민지¹, 최영은²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¹,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²

교신저자: 최영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arly Self-Recognition in Korean Toddlers: Mirror Self-Recognition and Body-Based Self-Recognition

E-MAIL: yochoi@cau.ac.kr

Minji Kim¹, Youngon Choi²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Master's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²

* 해당 논문은 2025년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됨.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영상 분석에 큰 도움을 준
문정희 학생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ABSTRACT

자기인식은 개인이 자신을 환경과 구분된 존재로 이해하는 능력으로, 인간 발달의 주요 전환점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는 한국 유아의 초기 자기인식 발달 궤도를 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재검토하고, 독립적 자기인식과 더불어 관계적 자기인식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5~26개월 유아 104명을 대상으로, 독립적 자기인식을 평가하는 거울 자기인식 과제와 신체-사물 간 관계적 자기인식을 평가하는 카트 자기인식 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나이에 따라 두 과제에서 모두 성공률이 높아지다가 24개월 이후에는 유아 대부분이 두 과제 모두 성공하였다. 특히 거울 자기인식 과제 성공률이 카트 자기인식 과제보다 높았고, 2000년대 초반 한국 유아와 달리 15~17개월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거울 자기인식 성공률을 보이면서 복미 유아의 발달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유아의 초기 자기인식이 과거보다 빠르게 출현, 발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요어 : 자기인식, 독립적 자기, 관계적 자기, 발달, 사회문화적 영향



© Copyright 2025,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자기인식(self-recognition)은 개인이 자신을 환경과 구분된 독립된 객체로 이해하는 능력을 이르는데, 자기인식이 가능해지는 시기는 인간 발달의 주요 전환점으로 고려된다(Lewis & Brooks-Gunn, 1979; Lewis & Ramsay, 2004). 이는 영유아기의 자기인식 발달이 자부심이나 수치심과 같은 자기의식 정서(self-conscious emotion) 인식의 토대가 되고(Lewis et al., 1989; Goncharova & Ross, 2023), 자신을 중심으로 경험한 일화적 사건들의 기억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Hayne & Jack, 2011), 나아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언어를 발달하는 등 다양한 영역의 발달에도 핵심적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Calmette & Meunier, 2024; Levine & Conway, 2010; Lewis & Minar, 2022; Lewis & Ramsay, 2004; Taumoepeau & Ruffman, 2016).

Rochat(2003)는 자기인식 출현이 출생 직후의 기본적인 신체 감각에서 시작해 점차 확장되는 연속적인 발달 과정이라고 보고 자기인식 발달의 다섯 단계를 제안하였다. 첫 단계는 자신을 주변과 구분된 자아(differentiated self)로 인식하는 단계로 외부 자극과 자신이 만들어낸 자극을 구분하기 시작한다(Kollakowski et al., 2023; Rochat & Hespos, 1997). 예컨대, 신생아는 타인이 자기 뺨을 만질 때 빨기 반사(rooting response)를 보여 손이 닿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만 자기 손이 자기 뺨에 닿을 때는 이런 반사 행동을 잘 보이지 않았다(Rochat & Hespos, 1997).

다음 단계는 생후 두 달 무렵부터 나타나는 상황적 자아(situated self) 형성 단계로 영아는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탐색하고 인식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젓꼭지를 빠는 강도가 일정 기준에 다다를 때 소리가 나는 장치를 제시하면,

생후 두 달 된 영아는 자신의 빠는 행동과 소리 발생 간의 관계를 탐지하여 빠는 강도를 다르게 조절하는 행동을 보였다(Rochat & Striano, 1999). 이는 영아가 특정 상황 안에서 자신의 행동과 결과를 연결 지을 수 있으며, 자신을 어떤 결과의 주체로 탐색하는 상황적 자아로 보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단계인 18개월 전후에는 뚜렷하게 ‘나’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 시기 유아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에 붙은 이물질을 만지거나 떼어내는 행동을 보인다. 이는 거울 속 이미지를 타인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식한다는 자기 동일시 자아(identified self) 단계의 출현을 나타낸다(Amsterdam, 1972; Lewis & Brooks-Gunn, 1979; Lewis & Ramsay, 2004).

3~4세 무렵에는 네 번째 단계로 진입하여 과거에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 속의 자기 모습을 자기 자신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속적 자아(permanent self)로서의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Povinelli, 1996; Rochat, 2003).

마지막 단계는 4세 이후로, 타인의 시선 속에 비친 자신을 의식하는 자기 의식적 자아(self-conscious self)가 출현하기 시작한다(Kochanska et al., 2002; Lewis et al., 1989; Rochat, 2003). 이 시기 아동은 타인을 의식하여 거울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단계적 관점에서 자기인식의 발달은 출생 직후의 신체 감각에서 출발하여 자기가 만든 행동 결과를 이해하고, 거울 속 자신을 객체로 인식하며, 점차 영속적 자아와 자기 의식적 자아로 확장되는 다층적 발달 과정으로 볼 수 있다(Lewis, 2011;

Rochat, 2003).

무엇보다 이와 같은 인간의 초기 자기인식의 발달 과정은 인간에게서 보편적인 양상을 따를 것이라 기대됐으나 최근 연구는 자기인식 발달이 사회화 목표, 양육 환경, 상호작용 맥락 등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달 될 가능성을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Cebioğlu & Broesch, 2021; Kärtner et al., 2012; Keller et al., 2004, 2005; Ross et al., 2017; Southgate, 2024). 특히 18~24개월은 지각적 자기와 타자 구분을 넘어서 자기 신체 이미지와 심리적 '나'의 표상이 결합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Kärtner et al., 2012; Keller et al., 2004, 2005). 이러한 자아 표상의 형성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 문화가 지향하는 사회화 목표, 일상적 양육 방식에 의해 조율될 수 있어(Keller et al., 2004, 2005), 이 시기는 생물학적 성숙만으로 설명되기보다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발달의 전환점으로 고려된다(Broesch et al., 2011; Cebioğlu & Broesch, 2021; Cebioğlu et al., 2022; Kärtner et al., 2012; Keller et al., 2004, 2005; Kristen-Antonow et al., 2015; Lewis & Ramsay, 2004; Ross et al., 2017).

구체적으로 Keller 등(2004)은 그리스, 카메룬의 은소부족, 그리고 코스타리카 유아를 대상으로 18~20개월 무렵 자기인식 발달 정도를 비교, 관찰하였다. 그 결과, 그리스 유아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데 높은 성공률을 보였지만, 카메룬의 은소부족 유아는 거울 속의 자기 모습에 대한 자기인식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코스타리카 유아는 그리스와 카메룬 유아의 중간 정도의 인식 수준을 보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Keller와 동료들(2005)은 독일 유아의 자기인식 발달 정도도 관찰하였는데, 카메룬 유아에 비해

자기 동일시 자아 인식이 더 빠르게 출현하였음을 관찰하였다(Keller et al., 2005).

이와 같은 국가 간의 차이는 크게는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독일과 그리스는 개인의 표현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문화 경향이 높지만, 카메룬은 사회적 관계와 관계 속에서의 조화를 더 중시하는 문화 경향이 높고, 코스타리카는 두 요소를 모두 강조하는 문화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Markus & Kitayama, 2014; Keller et al., 2004, 2005).

Broesch 등(2011) 역시 18~24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비교에서, 미국과 캐나다 유아는 대다수가 객관적 자기인식 능력이 발달했음을 관찰하였는데, 이와 달리, 케냐, 피지, 세인트루시아, 그레나다 그리고 페루의 비서구권 유아의 경우에는 객관적 자기인식 과제 성공률이 현저히 낮음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발달 시기의 유아를 비교한 다른 연구에서도 스코틀랜드 유아는 잠비아 유아에 비해 높은 객관적 자기인식 수준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고(Ross et al., 2017), 바누아투 유아의 자기인식 발달 시점이 캐나다 유아보다 늦은 것으로 관찰되었다(Cebioğlu & Broesch, 2021).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의 표현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중시 문화권에서는 객관적으로 자신을 주변과 분리하여 객체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능력이 더 빠르게 발달하도록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Markus & Kitayama, 2014; Ross et al., 2017; Southgate, 2024). 반대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시하는 집단주의 중시 문화권에서는 주변과 분리하여 개인을 객체로 인식하는 능력의 발달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도 시사한다(Broesch et al., 2011; Cebioğlu & Broesch, 2021; Kärtner et al., 2012; Keller et al., 2004,

2005; Ross et al., 2017). 그리고 이러한 발달 차이는 자기 동일시 자기인식의 발달이 토대가 되는 이후의 언어, 사회성 발달과 더불어 일화적 기억 형성 등의 발달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제기한다. 실제 일화적 기억 형성의 시기는 비서구권 문화에서 더 늦은 것으로 보고되었다(Fivush & Nelson, 2004).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성장하는 유아들의 자기인식 발달은 어떠할까? 자기인식 발달에서의 문화적 영향을 고려해 보면 전통적으로 한국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조화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이었으므로 자기인식 발달이 개인을 중시하는 문화권의 유아에 비해 늦게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2002~2005년 사이 15~24개월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거울에 비친 자기인식 능력을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이 시기 한국 유아의 자기인식 발달이 서구권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곽금주 등, 2005). 구체적으로, 15개월 유아의 거울을 통한 자기인식 과제 성공률은 12.5%에 불과했고, 18개월에서도 22.4%에 그쳤다. 21개월(52.2%)과 24개월(59.5%)에도 자기인식 능력을 보인 유아의 수는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18개월 유아가 47%가량 성공하고 24개월에는 100% 성공한 것과 비교할 때 (Amsterdam, 1972; Broesch et al., 2011; Keller et al., 2004, 2005; Lewis & Brooks-Gunn, 1979; Lewis & Ramsay, 2004), 한국 유아의 자기인식 발현이 상당히 지연되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또한, 한국 유아의 자기인식 발달이 코스타리카나 카메룬, 바누아투와 같이 관계 중심 문화권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한 발달 양상을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위에 보고된 문화에 따른 자기인식 발달

차이는 거울 자기인식(Mirror Self-Recognition) 과제(Amsterdam, 1972; Lewis & Brooks-Gunn, 1979; Lewis & Ramsay, 2004)라는 특정 과제로 측정하였을 때 나타나는 차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인식을 평가하는 측정 과제의 특성에 따라라도 자기인식 발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Brownell et al., 2007; Ross et al., 2017; Waugh & Brownell, 2015).

이 시기 자기인식 측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과제는 거울 자기인식 과제이다. 이 과제는 유아의 이마나 코와 같은 얼굴 부위에 립스틱을 바르거나 스티커를 붙인 뒤 거울을 보여주었을 때(그림 1 참조), 유아가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신임을 인식하고 거울이 아니라 자기 얼굴에 손을 뻗어 스티커를 제거하거나 립스틱을 닦으려는 행동을 보이는지를 관찰한다. 이때, 거울 속 자기 모습을 통해 자기 신체의 부착물이나 이물질 제거하려는 자기지향적 행동을 보이면 객관적 자기인식 능력이 출현하였다고 평가한다(Amsterdam, 1972; Lewis & Brooks-Gunn, 1979; Lewis & Ramsay, 2004).

거울 자기인식 과제는 유아가 거울 속 자기 모습을 시각적으로 구별하는 능력에 주로 기반하고 있고, 자신을 주변과 분리된 객체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자기인식 능력을 측정한다. 이러한 과제의 특성으로 인해 Ross와 동료들(2017)은 거울 자기인식 과제를 ‘독립적 자기’를 측정하는 과제라고 보았다.

이와 달리 주변과의 관계적 맥락에서 자신의 인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과제도 고안되었다(Moore et al., 2007). ‘몸을 장애물로 인식하는 과제(Body-as-Obstacle Test)’로 일컫는 카트를 이용한 자기인식 과제로, 이 과제에서는 유아에게 장난감 쇼핑 카트를 제시하고 카트를 밀도록 유도

한다. 이때 카트의 뒷바퀴에는 담요를 연결하여 펼쳐두고 유아가 카트를 밀고자 할 때 담요를 밟고서 있게 되어 유아의 신체 무게로 인해 카트가 밀리지 않도록 한다(그림 1 참조). 따라서 성공적으로 카트를 밀기 위해서는 유아가 자기 신체가 카트의 움직임에 방해물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밟고 있던 담요에서 벗어나 카트를 밀거나 담요를 말아서 밟히지 않도록 한 후 카트를 밀어야 한다. 따라서 거울 자기인식 과제가 시각적으로 객관적 자기인식을 평가한다면, 카트 자기인식 과제는 주변 사물과 자기 신체와의 관계적 경험 속에서의 자기인식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Brownell et al., 2007; Moore et al., 2007; Ross et al., 2017; Waugh & Brownell, 2015). Ross와 동료들(2017)은 카트 자기인식 과제가 이러한 측면에서 ‘관계적 자기’ 개념의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과제라고 보았다.

잠비아의 유아는 스코틀랜드 유아보다 거울 자기인식 과제의 성공률이 낮았으나 카트 자기인식 과제에서의 성공률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oss et al., 2017). 또 튀르키예의 유아들은 거울과 카트 자기인식 과제 성공률이 유사한 수준을 보여 스코틀랜드와 잠비아의 유아와도 또 다른 자기인식 발달 패턴을 보여주었다(Ross et al., 2017). 거울 과제에 실패하였던 잠비아 유아들이 카트 과제에서는 성공하였고, 튀르키예 유아들은 두 과제를 유사한 수준에서 수행하였다는 점은 잠비아나 튀르키예가 스코틀랜드와 비교하여 관계 중심의 문화라는 점에서 카트 자기인식 과제가 거울 자기인식 과제와 달리 ‘관계적 자기’의 초기 인식 발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자기인식 발달을 거울 자기인식 과제에만 의존하여 그 출현과 발달을 검토하는 것의 한계도

보여주었다. 즉, 발달 초기부터 자기인식은 독립적이고 객관적 측면과 더불어 관계적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발달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과제로 함께 검토하여야 자기인식 발달의 구체적 양상을 세밀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기 자기인식 발달 양상을 두 과제로 함께 재조명해 보는 것은 더 체계적이고 다층적으로 자기인식 발달의 궤도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해 보인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유아의 자기인식 발달을 관찰, 보고한 연구는 단 하나(곽금주 등, 2005)밖에 없었고, 측정에 사용된 과제도 거울 자기인식 과제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며 발달 양상도 약 20년 전 수집된 자료로, 그 시기의 한국 사회문화적 환경을 제한적으로 반영한 것일 수 있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해 온 한국의 양육 및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동일한 발달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지는 재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로 남아 있었다.

한국 사회는 최근 수십 년간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가치 전환이 뚜렷하게 보고되었으며(김동노, 2023; 나은영, 차유리, 2010), 이는 현 부모 세대의 양육 행동과 문화적 주의 편향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영유아를 자녀로 둔 현재의 한국 어머니들은 관계 중심 문화권에서 보이는 신체 접촉 중심의 근접 양육(proximal parenting)보다 개인 중심 문화권에서 주로 활용되는 눈 맞춤과 언어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원격 양육(distal parenting)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고(윤혜령, 최영은, 2023; Ross et al., 2017), 문화적 주의 편향성에도 배경과 같은 맥락적 정보보다 개별 전경 대상에 먼저 주목하는 분석적 주의 편향의 양상도 어느 정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이다(김재현, 최영은, 2025).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는 한국 유아의 자기인식 발달 시기와 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 동일시 자아가 출현하여 완성되는 시기의 15~26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초기 자기인식 발달 궤도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거울 자기인식 과제와 카트 자기인식 과제를 함께 실시하고, 유아의 독립적 자기인식과 관계적 자기인식이 어떠한 양상으로 발달하는지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의 자료를 과거 연구 자료와 탐색적으로 비교하여, 한국 유아의 자기인식 발달 시기가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다른 문화권 유아의 발달 양상과도 비교하여 초기 자기인식 발달의 양상이 보편적이기보다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으로 다변적으로 출현하여 성숙하는 것인지도 검토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15~26개월 사이의 유아 164명이 참여하였다. 2023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모집하였으며, 이 중 60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4명(남아 47명, 여아 57명, $M = 20.47$, $SD = 3.44$)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제외 사유는 언어 발달 지연(24명), 주의산만(17명), 울음으로 인한 중단(7명), 실험자 오류(6명), 언어 지연 확인 불가(4명), 부모의 개입(2명)이었다.

언어 발달 지연 가능성 확인을 위해 양육자에게 한국판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발달 평가 도구(Korean MacArthur-Bates Communicative Inventories, K-MCDI, 배소영, 광금주, 2011)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월령에 따라 영아용(8~17개월)과 유아용(18~36개월)을 각각 사용하였다.

언어 발달 지연은 이후 인지 및 학습 발달의 위험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Leonard et al., 2014; Rescorla, 2002), 인칭대명사 사용이나 신체 부위에 관한 어휘 수준은 거울 자기인식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였다(Lewis & Ramsay, 2004; Waugh & Brownel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인식 과제 수행이 언어적 이해 제한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K-MCDI에서 각 하위영역(표현, 이해, 제스처와 놀이, 문법)의 백분위 점수가 10 백분위 미만인 유아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나아가, 자기인식의 발달 궤도 탐색 및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본 연구의 참여 유아를 개월수에 따라 15~17개월($n = 30$, 남아 13명, $M = 16.27$ 개월, $SD = .74$), 18~20개월($n = 21$, $M = 19.00$ 개월, $SD = .84$), 21~23개월($n = 27$, $M = 22.00$ 개월, $SD = .88$), 24~26개월($n = 26$, $M = 24.92$ 개월, $SD = .84$)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령집단별 제외 인원은 15~17개월 14명, 18~20개월 19명, 21~23개월 13명, 24~26개월 14명이었다. 연령집단 간 제외율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제외 여부는 연령집



a. 거울 자기인식 과제

b. 카트 자기인식 과제

그림 1. 자기인식 과제 예시(제1저자가 직접 그림)

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hi^2(3, N = 164) = 2.82, p = .421$). 또한, 제외 사유의 분포가 연령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Fisher의 정확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령집단에 따른 제외 사유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395$).

연구도구 및 절차

모든 과제는 유아가 편안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실험실 공간에서 진행하였고, 실험의 전 과정을 녹화하였다. 과제를 수행하기 전, 유아는 실험 공간에 적응하도록 약 3분 정도 자유롭게 놀이하도록 하였다. 이후 유아는 어머니와 함께 카트—거울 자기인식 과제 순으로 참여하였다. 유아의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실험실을 벗어나려는 경향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더 즐겁고 동적인 카트 자기인식 과제를 먼저 실시하였다.

카트 자기인식 과제(카트 과제)

Moore 등(2007)이 개발한 ‘몸을 장애물로 인식하는 과제(Body-as-Obstacle Test)’를 바탕으로, 담요와 유아용 쇼핑카트를 연결하고 단일 과제 형태로 간결화하여 적용한 Ross 등(2017)의 절차를 참고하였다. 높이 65cm의 유아용 쇼핑카트의 뒷바퀴에 가로 70cm, 세로 100cm 담요를 연결하여 카트 과제에 사용하였다.

먼저, 유아와 어머니는 카트와 2m 이상의 거리를 둔 의자에 앉아 실험자가 담요를 잡고 유아를 향해 카트를 이동시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후, 유아를 카트와 연결된 담요 위에 올라가게 한 뒤 유아에게 카트를 밀도록 최대 5회 요청하였다(예, “카트 주세요”, “카트 밀어줘.”, “카트 가져와 줘”

등). 유아가 담요 위에서 스스로 벗어나 카트를 1m 이상 이동시키면 성공으로 간주하였다(그림 1 참조).

거울 자기인식 과제(거울 과제)

유아의 코나 볼에 몰래 립스틱을 묻히는 선행된 거울 자기인식 연구들(Amsterdam, 1972; Lewis & Brooks-Gunn, 1979)을 비롯하여 이후 반복·확장된 연구(Moore et al., 2007; Ross et al., 2017)의 절차를 참고하였다. 과제 진행 전, 지름 16mm의 유색 원형 스티커를 몰래 유아의 이마에 부착하였다. 이후 가로 30cm, 세로 121cm 크기의 거울을 유아에게 제시하였다. 유아가 3분 이내에 스티커를 3cm 간격 이내로 만지거나 제거하려는 자기지향적 행동을 보이면 성공한 것으로 보았다(그림 1 참조). 거울을 제시하는 동안 실험자와 유아의 어머니는 유아의 신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유아가 거울을 바라보지 않을 시에만 “여기 봐, 여기 봐”라는 말과 함께 거울을 가리켰다.

코딩 및 신뢰도

실험자는 녹화된 영상을 바탕으로 유아의 성공·실패 여부를 코딩하였다. 거울 과제에서 유아가 자기지향적 행동 없이 스티커를 언급하는 경우(예, “빨간색”, “스티커” 등)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잠재적 편향성과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현장에서 과제를 실시한 실험자와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관찰자(발달심리 전공 대학원생)가 전체 104개의 영상 중 무작위로 31개(약 30%)를 추출하여 독립적으로 이중 코딩하였다(15~17개월 9개, 18~20개월 8개, 21~23개월 6개, 24~26개월 8개). 두 코더 간 일치도는 거울 과제, .91(Cohen's Kappa), 카트 과제 .85였다.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R 프로그램(Version 4.4.1; R Core Team, 2024)을 사용하였다. 먼저, 자기인식 과제의 수행 빈도와 성공률을 산출하였다. 전체 유아의 두 과제 간 수행 차이는 독립적이지 않아 맥니마 검정(McNemar test)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른 과제 성공률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혼합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현재 한국 유아의 자기인식 발달 수준을 과거 및 최신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발달적 경향과 시기적 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광금주 등(2005)과 Lewis와 Ramsay(2004)의 연구는 연령 집단별 거울 자기인식 과제 성공률만 보고하고 표본 수가 없어 보고된 성공률을 중심으로 발달적 변화의 경향을 탐색적으로 비교하였다.

문화적 비교를 위해 피서의 정확검정과 카이제곱 검정으로 Cebioğlu와 Broesch(2021)의 캐나다, 바누아투 유아와 거울 과제 성공률을 비교 분석하였고, Ross 등(2017)의 스코틀랜드, 잠비아, 튀르키예의 자료와는 거울 과제와 더불어 카트 과제 성공률도 비교하였다.

결 과

자기인식 과제 수행

표 1에 본 연구 참여 유아의 자기인식 과제 수행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체 유아($N = 104$)의 거울 과제 성공률은 83.65%(87명), 카트 과제 성공률은 56.73%(59명)이었고, 두 과제의 차이는 유의하였다(맥니마 검정, $\chi^2(1) = 17.36$, $p = .000$, $N = 104$).

표 1. 거울 자기인식 과제와 카트 자기인식 과제의 성공·실패 빈도

과제	거울		합계
	성공	실패	
카트 성공	52(50.00)	7(6.73)	59(56.73)
실패	35(33.65)	10(9.62)	45(43.27)
합계	87(83.65)	17(16.35)	104(100)

주. 각 셀의 값은 빈도: 명(%).

과제 간 성공 가능성의 상대적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I)을 산출하였다. 오즈비는 한 과제에서 성공하고 다른 과제에서 실패한 불일치 쌍의 비율로 정의되며(Szumilas, 2010), 그 값이 1보다 작을수록 카트 과제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거울 과제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거울 과제에 성공했으나 카트 과제에 실패한 아동은 35명이었지만, 카트 과제에 성공하고 거울 과제에 실패한 아동은 7명에 불과하였다. 오즈비는 0.20, 95% CI[0.075, 0.456]로, 카트 과제 성공 가능성이 거울 과제보다 약 20% 수준 낮았다.

연령에 따른 자기인식 과제 수행

거울 과제 수행에서 15~17개월은 56.67%(17명), 18~20개월은 85.71%(18명), 21~23개월은 96.30%(26명), 그리고 24~26개월은 100%(26명)의 성공률을 보였다(그림 2 참조). 카트 과제는 15~17개월이 20.00%(6명), 18~20개월 57.14%(12명), 21~23개월 70.37%(19명), 24~26개월 84.62%(22명)로 나타났다.

월령에 따른 과제 수행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개월 수를 연속형 변인으로 투입한 이항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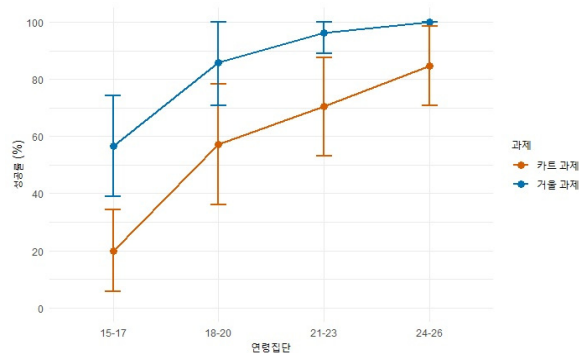


그림 2. 연령에 따른 자기인식 과제 성공률(%)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월령이 증가할수록 거울 과제($\beta = 0.45$, $SE = 0.13$, $p = .000$, $OR = 1.56$, 95% CI [1.26, 2.07])와 카드 과제($\beta = 0.35$, $SE = 0.08$, $p = .000$, $OR = 1.42$, 95% CI [1.24, 1.66])의 성공 가능성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월령이 한 달 증가할 때마다 각 과제에서 성공 가능성이 약 1.56배, 1.4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 별 과제 유형에 따른 성공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과제 유형(거울, 카드)을 내적 요인으로, 연령집단을 외적 요인으로 투입한 혼합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집단의 선형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beta = 2.20$, $SE = 0.50$, $p = .000$),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과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재확인되었다. 반면, 과제 유형의 주효과($p = .991$)와 과제 유형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 = .994$, $p = .994$, $p = .995$).

추가로, 연령에 따라 과제 간 성공률 차이가 달라질 가능성이 앞선 분석에서 관찰되어, 각 연령집단 별로 과제 유형 차이에 대한 단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5~17개월($p = .005$), 18~20개월($p = .049$), 21~23개월($p = .030$)에서 거울 과

제의 성공 가능성이 카드 과제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4~26개월에서는 두 과제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993$).

종합하면, 유아의 자기인식 과제 성공률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였고, 24개월 이후에는 대다수 유아가 자기인식 과제에 성공하였다. 또한, 과제 유형에 따라 발달 양상이 달라, 거울 자기인식은 18~20개월경에 뚜렷하게 증가하였지만, 카드 자기인식은 이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인식 발달 궤도

본 연구의 거울 과제 수행 결과를 2000년도 초반에 관찰된 거울 자기인식 발달 패턴과 비교하였다(그림 3 참조). 광금주 등(2005)은 2002~2005년 사이 한국 유아의 거울 과제 성공률을 15개월 12.5%, 18개월 22.4%, 21개월 52.5%, 24개월 59.5%로 보고하였다. 미국 뉴저지 유아를 대상으로 한 Lewis와 Ramsay(2004)는 같은 연령대에서 각각 11%, 47%, 82%, 100%를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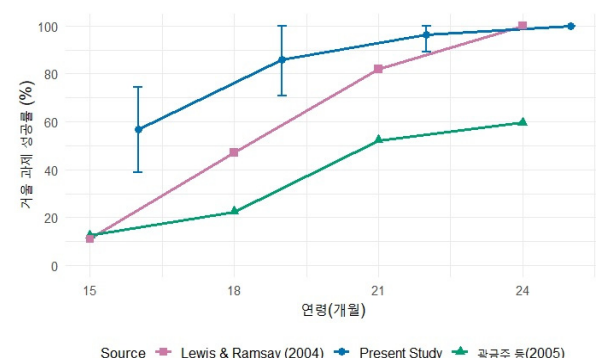


그림 3. 본 연구와 광금주 등(2005), Lewis & Ramsay (2004)에서 보고된 거울 자기인식 과제 성공(%) 궤도 비교. 본 연구의 자료에는 95% 신뢰구간을 표시. 타 연구자료는 원자료 접근이 불가능하여 표시하지 못함.

본 연구에서 측정된 거울 자기인식 과제 성공률은 15 - 17개월(평균 16.27개월) 56.7%, 18 - 20개월(평균 19.00개월) 85.7%, 21 - 23개월(평균 22.00개월) 96.3%, 24 - 26개월(평균 24.92개월) 100%로 나타났다.

18개월 시점에서 미국 유아는 47%가 성공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 한국 유아는 22.4%에 그쳤다. 21개월 시점에서는 미국 유아의 82%가 성공한 데 비해 한국 유아는 52.5%였으며 24개월에서도 59.5%이었다.

Lewis와 Ramsay(2004)의 미국 표본이 광금주 등(2005)의 한국 표본에 비해 약 3~6개월 빠른 자기인식 발달 패턴을 보였는데, 본 연구의 한국 유아는 두 연구에 비해 21개월 이전에 더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특히 15~17개월 이후 시점부터 과제 성공률이 빠르게 향상하였다. 또한, 21개월 이후 96.3%가, 24개월에는 100%가 성공하였다. 이러한 발달 양상은 미국 유아의 21개월 이후 발달과 유사하고, 2000년대 초반 한국 유아의 양상과는 달랐다.

최근 다문화 표본과의 비교

Cebioğlu와 Broesch(2021)가 보고한 다문화 자료와 본 연구 자료를 직접 비교해 보았다. 캐나다 유아 22명의 성공률은 68.18%(15명), 바누아투 유아는 6.90%(2명)로 나타났다(두 집단 평균 월령, 19.50개월, $SD = 1.21$, 범위 17.58 - 22.24). 본 연구에서 17~22개월에 해당된 유아는 총 51명(남아 23명, $M=19.29$ 개월)이었고, 이 중 76.47%인 39명이 거울 과제에 성공하였다.

세 집단의 거울 과제 성공률을 Fisher의 정확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p = .000$, $Cramer's V = .61$). 두 집단씩 비교한 결과, 본 연구와 캐나다 유아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p = .132$), 바누아투 유아와는 차이가 유의하였다($p = .000$, $OR = 41.21$, 95% CI [8.47, 407.54]). 캐나다와 바누아투 집단의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Cebioğlu & Broesch, 2021). 이러한 결과는 한국 유아의 자기인식 발달이 바누아투 유아보다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며, 캐나다 유아와 유사한 양상으로 발달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Ross 등(2017)이 보고한 스코틀랜드, 잠비아, 튀르키예의 거울 및 카트 과제 자료와 본 연구 유아의 자료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15~18개월 스코틀랜드 유아 31명(평균 16.55개월), 잠비아 유아 33명(평균 16.79개월), 튀르키예 유아 22명(평균 16.14개월)을 대상으로 두 과제를 실시한 결과, 스코틀랜드 유아의 거울 과제 성공률은 47%(약 15명), 잠비아 유아 15%(약 5명), 튀르키예 유아 41%(약 9명)로 나타났다. 카트 과제의 성공률은 스코틀랜드 유아 23%(약 7명), 잠비아 유아 50%(약 17명), 튀르키예 유아 57%(약 13명)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15~18개월에 해당하는 유아는 총 37명(남아 15명, $M = 16.59$ 개월)이었고, 이 중 64.86%(24명)가 거울 과제에 성공하였고 24.32%(9명)가 카트 과제에 성공하였다.

세 국가의 유아와 각각 카이제곱 검정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거울 과제에서 본 연구 유아와 잠비아 유아 간 차이가 유의하였고($\chi^2(1, N = 70) = 15.78$, $p = .000$), 스코틀랜드 유아($p = .262$), 튀르키예 유아($p = .128$)와는 유의하지 않았다. Ross 등(2017)의 보고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와 잠비아 유아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스코틀랜드와 튀르키예 유아는 차이가 없었다. 잠비아와 튀르키예 유아의

차이는 유의수준에 근접하였다.

카트 과제 성공률에서는 본 연구 유아와 튀르키예 유아 차이가 유의하였고($\chi^2(1, N = 59) = 5.72, p = .017$), 스코틀랜드 유아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1.000$). 잠비아 유아와의 차이는 유의수준에 근접하였다($p = .063$). 스코틀랜드와 튀르키예 유아, 스코틀랜드와 잠비아 유아 간에는 카트 과제 성공률의 유의한 차이가 보고되었으나, 튀르키예와 잠비아 유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Ross et al., 2017).

논 의

본 연구는 15~26개월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거울 자기인식 과제와 카트 자기인식 과제를 실시하여, 초기 자기인식 발달 궤도를 탐색하고 과거 연구 및 다른 문화권 발달 양상과 비교하였다. 두 자기인식 과제 모두에서 연령에 따른 성공률의 상승이 확인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거울 자기인식 능력의 발달이 카트 이동의 방해물로서의 자기인식 보다 먼저 출현하고 빠르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대 초반 관찰된 한국 유아(곽금주 등, 2005)의 발달에 비하여 현재의 한국 유아들은 거울을 통한 자기 동일시 자기인식의 출현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거울 자기인식 성공률의 뚜렷한 상승은 Lewis와 동료들(1989)이 초기 보고한 18~24개월 사이 자기인식 행동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과 일치하며, 이 시기 자기인식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카트 자기인식 과제에서는 연령에 따라 수행이 증가하였으나, 변화율이 점진적이고, 동일 연령대에서 거울 자기인식 과제보

다 낮은 수행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자기 개념의 두 측면인 독립적 자기와 관계적 자기의 발달 양상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거울 과제에서의 높은 성공률은 자신을 주변과 구분된 객체로 인식하는 독립적 자기의 초기 성숙을 반영하고, 카트 과제의 점진적 향상은 타인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적 자기를 인식하는 발달이 점진적임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Brownell et al., 2007; Moore et al., 2007; Ross et al., 2017; Waugh & Brownell, 2015).

불과 20여 년 전의 한국 유아의 자기인식 발달 양상과 현시점의 발달 양상이 확연히 다르게 관찰된 부분은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곽금주 등(2005)에 따르면 과거 18개월 유아의 거울 속 자기인식 성공률이 22.4%에 불과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18~20개월의 85.7%가 성공적으로 거울 속 자신을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달 패턴은 미국 유아의 발달 궤도에 더 가까운 양상이었고(Lewis & Ramsay, 2004), 한편으로는 미국 유아와 비교하여도 객관적 자기인식이 상당히 빠르게 출현하여 발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관찰된 한국 유아의 자기인식 발달은 최근 다문화 비교 연구와의 직접 비교에서도 문화 간 변이를 명확히 드러냈다. 한국 유아의 거울 자기인식 성공률은 캐나다, 스코틀랜드, 튀르키예 유아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바누아투, 잠비아 유아보다 높았다(Cebioğlu & Broesch, 2021; Ross et al., 2017). 반면 카트 자기인식 과제에서는 한국 유아의 성공률이 튀르키예 유아보다 낮고, 스코틀랜드와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Ross 등(2017)에서도 거울 과제와 카트 과제가 서로 다른 문화적 민감성을 보였다는 보고와 맥락을 같이 하며, 문화적 경험이 독립적, 관계적 자기 발달 양

상을 조절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과거와 현시점 한국 유아의 발달 양상의 차이는 지난 20년간 한국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가치 전환을 경험하였다(김동노, 2023; 나은영, 차유리, 2010). 또한, 현세대 한국 어머니들은 양육 시 근거리의 신체적 접촉보다는 원거리 상호작용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윤혜령, 최영은, 2023). 이러한 변화는 문화적 가치가 영유아기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다. 상호 의존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유아를 밀착해 안거나 신체적으로 자극하는 근접 양육이 주로 나타나며, 유아가 타인과의 정서적 연결과 조화를 조기부터 학습하도록 돕는다. 반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눈 맞춤, 얼굴 마주보기, 사물 탐색과 같은 원거리 양육이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은 영아가 자기 행동을 통제하고 환경과 분리된 주체로서 경험하도록 돕는다(Keller et al., 2004). 이러한 초기 원거리 양육 경험은 이후 독립적 자기 발달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ärtner et al., 2012, Keller et al., 2004, 2005; Ross et al., 2017).

이런 맥락에서 독일, 그리스, 카메룬의 18개월 유아의 자기인식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독일과 그리스의 어머니는 유아와의 눈 맞춤과 언어적 소통 같은 원격 양육 행동을 주로 사용하였고, 카메룬의 어머니는 신체적 돌봄이나 지시적 행동과 같은 근접 양육 행동을 더 빈번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eller et al., 2004, 2005). 유사한 양육 행동의 차이는 스코틀랜드, 잠비아 양육자에게서도 나타났는데, 스코틀랜드의 양육자는 원격 양육 행동이 중심이었던 반면에 잠비

아 양육자는 근접 양육 행동을 주로 보여주었다(Ross et al., 2017). 윤혜령과 최영은(2023)에 따르면 현시점 한국 어머니는 스코틀랜드 어머니보다 더 높은 빈도로 원격 양육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 유아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들은 문화적 주의 편향성(Masuda & Nisbett, 2001)에서도 변화를 보인다(김재현, 최영은, 2025). 어머니가 자녀에게 어떤 장면을 묘사할 때, 배경이나 맥락보다 개별 대상을 먼저 언급하는 분석적 편향성(analytic bias)이 일부 관찰되었기 때문이다(김재현, 최영은, 2025).

이러한 현세대 양육자의 변화된 문화적 가치는 양육 행동과 더불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반영되어 한국 유아의 독립적 자기인식의 발달 시점을 앞당기는 촉진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Southgate, 2024). 같은 시기 관계적 자기인식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늦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측면에서 현시기 한국 유아의 독립적 자기인식 발달은 촉진되었으나 관계적 자기인식 발달은 상대적으로 덜 촉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전반에서도 유사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24개월 유아의 독립적 탐색 놀이와 활동, 주도적 표현과 자율성 지향 행동은 1995년에 비해 2008년에 증가한 반면, 어머니의 놀이 참여 유도나 신체적 접촉을 추구하는 연결성 지향 행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Chen et al., 2021). 또한, 한국·중국·일본 부모의 사회화 목표의 중심이 순종 중심에서 유아의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이행되었다는 보고도 있다(Park et al., 2014).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한국 유아의 자기인식 발달이 동아시아 전반에서 관

찰되는 거시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양육자의 양육 행동 방식과 문화적 가치의 변화, 문화적 주의 편향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가 직접적으로 독립적 자기와 관계적 자기인식의 촉진이나 저해에 관여되는지 그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양육 행동이나 주의 편향성 외에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기인식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양육자의 자녀 모방(Cebioğlu & Broesch, 2021)이나 자녀에 관한 대화 내용의 차이(Cebioğlu et al., 2022)도 고려되고 있다. 캐나다와 바누아투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을 비교 연구한 결과, 캐나다의 어머니는 바누아투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행동과 표현을 적극적으로 동시 모방하는 경향을 보였고, 어머니의 모방이 1 표준편차 증가할수록 거울 과제 성공률도 2.9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Cebioğlu & Broesch, 2021). 순종과 사회적 조화가 중요한 바누아투의 문화에서는 아동의 행동을 성인이 모방하는 빈도가 낮을 수 있고, 이러한 요인이 객관적이고 독립적 자기인식의 출현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Cebioğlu & Broesch, 2021).

또한, 캐나다 어머니는 바누아투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욕구, 의지, 감정과 같은 정신적 상태를 더 많이 언급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바누아투 어머니는 자녀의 행동을 언급하는 경향이 높았다(Cebioğlu et al., 2022). 그리고 캐나다 어머니는 자녀의 실재적 특징(예, “이게 네 배야?”, “이를 보여줘.”)을 더 빈번히 언급하는 특징을 보여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주의를 자녀 자신에게 가져가는 일화가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도 있었다(Cebioğlu et al., 2022). 비록 이러한 대화상에서의 차이가 직접적으로 독립적 자기인식 발달을 촉진하는지는

추후 직접적 검증이 필요하겠으나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에서 관찰된 주요한 차이로 자기인식 발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엿보였다.

이처럼 자기인식은 보편적 성숙 과정이면서도, 사회문화 및 양육 환경에 따라 출현 시점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 아동이 동시대 서구 아동과 유사한 발달 궤도를 보였다는 결과는, 앞서 논의한 한국 사회의 문화적 가치 변화가 현세대 한국 아동의 발달 과정의 변화를 이끌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영향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중(multimodal) 지각—운동 경험도 거울 자기인식 과제의 성공을 촉진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이다(Adolph & Tamis-LeMonda, 2024; Chinn et al., 2024). 예컨대, 아직 거울 과제에 성공하지 못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마나 뺨에 소리 없이 진동하는 단추를 부착하고, 유아가 거울을 볼 때 진동을 유발하여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진동을 일으킨 단추를 만지기 위해 얼굴에 손을 가져가는 자기 움직임을 관찰하는 운동-시각 경험을 하도록 하면,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던 유아에 비해서 더 이른 시기인 16개월에 거울 자기인식 과제에 성공하였다(Chinn et al., 2024). 이는 동시에 촉감, 시각, 그리고 고유감각(예, 자기 몸의 움직임)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거울 과제에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Adolph & Tamis-LeMonda, 2024). 다중 지각과 운동 경험의 거울 과제 성공 영향은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한 유아일수록 과제 성공률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험의 유무나 빈도를 측정하여 통제하여야 자기인식 발달에 있어서

운동감각 능력을 넘어 인식적 표상이 언제 출현하는지를 더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한국 유아가 과거에 비해 이른 시기부터 빠르게 자기 동일시 단계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자기인식 발달을 보인 것은 여러 차원에서 주요한 발달적 함의를 갖는다. 우선, 뇌 발달 차원에서 거울 자기인식 과제에 성공한 유아들은 자신과 타인 인식에 관여하는 뇌 영역인 전두-측두정엽 영역(fronto-temporoparietal regions)이 더 활성화되고, 기능적으로도 더 통합된 것으로 관찰되었다(Bulgarelli et al., 2019). 나아가 한 종단연구에서는 거울 과제에 이른 나이에 성공한 유아일수록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4~5세 시점에 정서 명칭 발화, 정서 표정 구분 등의 정서 지식(Emotional Knowledge)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Lewis & Minar, 2022).

더불어 Howe와 동료들(2003)은 거울 자기인식을 성공한 유아들이 숨겨진 장난감의 위치를 더 잘 기억하며 초기 자기인식이 이후 자서전적 기억과 자기 정체성 통합에 핵심적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이른 자기인식 출현은 이후 발달 경로, 특히 사회적 이해와 자아 개념의 형성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자기인식 발달의 개인차는 정서적·임상적 함의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의식 정서(예: 수치심, 죄책감)는 자기인식 발달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Kochanska et al., 2002; Lewis et al., 1989; Lewis & Minar, 2022; Lewis & Ramsay, 2004; Luby et al., 2009), 발달 속도의 편차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표가 될 수 있다. Rochat (2021)는 임상적 맥락에서 자기인식 출현의 지연이 여러 유형의 발달장애의 조기 진단과 개입의 단서

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기인식 발현이 이후 정서 발달 및 임상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후속 연구에서 더 체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표본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로 제한되어 있어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부모 양육 가치나 상호작용 양상과 같은 사회문화적 변인을 직접 측정하지 않아, 자기인식 발달의 이른 출현의 구체적 원인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포함한 표본, 부모-유아 상호작용 및 대화 내용 분석, 그리고 종단적 설계를 통해 발달 궤도를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인식 과제의 고정된 순서가 미쳤을 잠재적 영향도 배제하기 어렵다. 카트 과제 후 거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순서는, 유아가 카트 과제를 통해 신체적 자기를 인식하는 경험을 하게 하고, 이것이 이어지는 거울 과제에서 자기 초점을 높였을 가능성도 잠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과제 순서를 균형화(counterbalance)하여 순서 효과를 통제하고, 두 과제 간의 관계를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시점 한국 유아의 자기인식 발달 궤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과거 및 문화 간 비교 연구를 참조하여 세대적, 문화적 변화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자기인식은 보편적 발달 과정이면서도 신체적 경험,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적 가치가 맞물려 형성되는 복합적 발달 과정임을 보여 준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곽금주, 성현란, 장유경, 심희옥, 이지연, 김수정, 배기조 (2005). **한국영아발달연구**. 서울: 학지사.
- 김동노 (2023). 개인주의, 집단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와 한국 사회의 변화. **사회이론**, 153-196.
<https://doi.org/10.37245/kjst.2023.05.63.153>
- 김재현, 최영은 (2025). 유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한국 어머니가 보인 문화적 주의 편향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8(1), 183 - 220.
<https://doi.org/10.35574/KJDP.2025.38.1.52778.52778>
- 나은영, 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 년, 1998 년, 및 2010 년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2.
- 배소영, 곽금주 (2011). **한국판 맥아더-베이트 의사소통 발달평가 (K MB CDI)**. 서울: 마인드프레스.
- 윤혜령, 최영은 (2023). 문화에 따른 양육방식: 한국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에서 주로 나타난 원격 양육행동 패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6(4), 83-101.
<https://doi.org/10.35574/KJDP.2023.12.36.483>
- Adolph, K. E., & Tamis-LeMonda, C. S. (2024). Self-recognition: From touching the body to knowing the self. *Current Biology*, 34(6), R239-R241.
<https://doi.org/10.1016/j.cub.2024.02.007>
- Amsterdam, B. (1972). Mirror self image reactions before age two. *Developmental Psychobiology: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developmental psychobiology*, 5(4), 297-305.
- Broesch, T., Callaghan, T., Henrich, J., Murphy, C., & Rochat, P. (2011). Cultural variations in children's mirror self-recogni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2(6), 1018-1029.
<https://doi.org/10.1177/0022022110381114>
- Brownell, C. A., Zerwas, S., & Ramani, G. B. (2007). "So big": The development of body self awareness in toddlers. *Child development*, 78(5), 1426-1440.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7.01075.x>
- Bulgarelli, C., Blasi, A., de Klerk, C. C., Richards, J. E., Hamilton, A., & Southgate, V. (2019). Fronto-temporoparietal connectivity and self-awareness in 18-month-olds: A resting state fNIRS study. *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 38, 100676.
<https://doi.org/10.1016/j.dcn.2019.100676>
- Calmette, T., & Meunier, H. (2024). Is self awareness necessary to have a theory of mind?. *Biological Reviews*, 99(5), 1736-1771. <https://doi.org/10.1111/brv.13090>
- Cebioğlu, S., & Broesch, T. (2021). Mirror self-recognition across cultures: Evidence

- from maternal imitation and joint attention. *Developmental Science*, 24(6), e13117.
<https://doi.org/10.1111/desc.13117>
- Cebioğlu, S., Marin, K. A., & Broesch, T. (2022). Variation in caregivers' references to their toddlers: Child directed speech in Vanuatu and Canada. *Child Development*, 93(6), e622-e638.
<https://doi.org/10.1111/cdev.13833>
- Chen, X., Chen, X., Zhao, S., Way, N., Yoshikawa, H., Zhang, G., Deng, H., Cao, R., Chen, H., & Li, D. (2021). Autonomy- and connectedness-oriented behaviors of toddlers and mothers at different historical times in urban China. *Developmental Psychology*, 57(8), 1254-1260. <https://doi.org/10.1037/dev0001224>
- Chinn, L. K., Noonan, C. F., Patton, K. S., & Lockman, J. J. (2024). Tactile localization promotes infant self-recognition in the mirror-mark test. *Current Biology*, 34(6), 1370-1375.
<https://doi.org/10.1016/j.cub.2024.02.028>
- Fivush, R., & Nelson, K. (2004). Culture and language in the emergence of autobiographical memory. *Psychological science*, 15(9), 573-577.
<https://doi.org/10.1111/j.0956-7976.2004.00722.x>
- Goncharova, Y., & Ross, J. (2023). The self concept questionnaire offers a multidimensional, developmentally sensitive measure of the capacity for self reflection in young childre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32(6), e2459.
<https://doi.org/10.1002/icd.2459>
- Hayne, H., & Jack, F. (2011). Childhood amnesia.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ognitive Science*, 2(2), 136-145.
<https://doi.org/10.1002/wcs.107>
- Howe, M. L., Courage, M. L., & Edison, S. C. (2003). When autobiographical memory begins. *Developmental Review*, 23(4), 471-494.
<https://doi.org/10.1016/j.dr.2003.09.001>
- Kärtner, J., Keller, H., Chaudhary, N., & Yovsi, R. D. (2012). The development of mirror self-recognition in different sociocultural context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101.
<https://doi.org/10.1111/j.1540-5834.2012.00688.x>
- Keller, H., Yovsi, R., Borke, J., Kärtner, J., Jensen, H., & Papaligoura, Z. (2004). Developmental consequences of early parenting experiences: Self recognition and self regulation in three cultural communities. *Child development*, 75(6), 1745-1760.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4.00814.x>
- Keller, H., Kärtner, J., Borke, J., Yovsi, R., & Kleis, A. (2005). Parenting styl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categorical self: A

- longitudinal study on mirror self-recognition in Cameroonian Nso and German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6), 496-504.
<https://doi.org/10.1177/01650250500147485>
- Kochanska, G., Gross, J. N., Lin, M. H., & Nichols, K. E. (2002). Guilt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 determinants, and relations with a broader system of standards. *Child development*, 73(2), 461-482.
<https://doi.org/10.1111/1467-8624.00418>
- Kollakowski, N. A., Mammen, M., & Paulus, M. (2023). What is the implicit self in infancy? A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of current theories on the early self. *Cognitive Development*, 68, 101394.
<https://doi.org/10.1016/j.cogdev.2023.101394>
- Kristen-Antonow, S., Sodian, B., Perst, H., & Licata, M. (2015).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merging self from 9 months to the age of 4 years. *Frontiers in Psychology*, 6, 789.
<https://doi.org/10.3389/fpsyg.2015.00789>
- Leonard, L. B., Weismer, S. E., Miller, C. A., Francis, D. J., Tomblin, J. B., & Kail, R. V. (2007). Speed of processing, working memory, and language impairment in children.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0(2), 408 - 428.
[https://doi.org/10.1044/1092-4388\(2007/029\)](https://doi.org/10.1044/1092-4388(2007/029))
- Levine, L. E., & Conway, J. M. (2010). Self - other awareness and peer relationships in toddlers: gender comparison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9(5), 455-464.
<https://doi.org/10.1002/icd.675>
- Lewis, M. (2011). The origins and uses of self-awareness or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me. *Consciousness and Cognition*, 20(1), 120-129.
<https://doi.org/10.1016/j.concog.2010.11.002>
- Lewis, M., & Brooks Gunn, J. (1979). Toward a theory of social cognition: The development of self.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7(4), 1-20.
<https://doi.org/10.1002/cd.23219790403>
- Lewis, M., & Ramsay, D. (2004). Development of self recognition, personal pronoun use, and pretend play during the 2nd year. *Child development*, 75(6), 1821-1831.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4.00819.x>
- Lewis, M., Sullivan, M. W., Stanger, C., & Weiss, M. (1989). Self development and self-conscious emotions. *Child development*, 146-156.
<https://doi.org/10.1111/j.1467-8624.1989.tb02704.x>
- Lewis, M., & Minar, N. J. (2022). Self-recognition and emotional knowledg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3), 319-342.

- <https://doi.org/10.1080/17405629.2021.1890578>
- Luby, J., Belden, A., Sullivan, J., Hayen, R., McCadney, A., & Spitznagel, E. (2009). Shame and guilt in preschool depression: Evidence for elevations in self conscious emotions in depression as early as age 3.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9), 1156-1166.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9.02077.x>
- Markus, H. R., & Kitayama, S. (2014).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In *College student development and academic life* (pp. 264-293). Routledge.
- Masuda, T., & Nisbett, R. E. (2001). Attending holistically versus analytically: comparing the context sensitivity of Japanese and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5), 922.
<https://doi.org/10.1037//0022-3514.81.5.922>
- Moore, C., Mealiea, J., Garon, N., & Povinelli, D. J. (2007). The development of body self awareness. *Infancy*, 11(2), 157-174.
<https://doi.org/10.1111/j.1532-7078.2007.tb00220.x>
- Park, H., Coello, J. A., & Lau, A. S. (2014). Child socialization goals in East Asian versus Western nations from 1989 to 2010: Evidence for social change in parent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4(2), 69 - 91.
<https://doi.org/10.1080/15295192.2014.914345>
- Povinelli, D. J., Landau, K. R., & Perilloux, H. K. (1996). Self recognition in young children using delayed versus live feedback: Evidence of a developmental asynchrony. *Child development*, 67(4), 1540-1554.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6.tb01813.x>
- R Core Team. (2024).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Version 4.4.1) [Computer software].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https://www.r-project.org/>
- Rescorla, L. (2002). Language and reading outcomes to age 9 in late-talking toddler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5(2), 360-371.
[https://doi.org/10.1044/1092-4388\(2002/028\)](https://doi.org/10.1044/1092-4388(2002/028))
- Rochat, P. (2003). Five levels of self-awareness as they unfold early in life.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2(4), 717-731.
[https://doi.org/10.1016/S1053-8100\(03\)00081-3](https://doi.org/10.1016/S1053-8100(03)00081-3)
- Rochat, P. (2021). Clinical pointers from developing self awareness. *Developmental Medicine & Child Neurology*, 63(4), 382-386.
<https://doi.org/10.1111/dmcn.14767>
- Rochat, P., & Hespos, S. J. (1997). Differential

- rooting response by neonates: Evidence for an early sense of self.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6(3-4), 105-112.
[https://doi.org/10.1002/\(SICI\)1099-0917\(199709/12\)6:3/4<105::AID-EDP150>3.0.CO;2-U](https://doi.org/10.1002/(SICI)1099-0917(199709/12)6:3/4<105::AID-EDP150>3.0.CO;2-U)
- Rochat, P., & Striano, T. (1999). Emerging self exploration by 2 month old infants. *developmental science*, 2(2), 206-218.
<https://doi.org/10.1111/1467-7687.00069>
- Ross, J., Yilmaz, M., Dale, R., Cassidy, R., Yildirim, I., & Suzanne Zeedyk, M. (2017). Cultural differences in self recognition: The early development of autonomous and related selves?. *Developmental Science*, 20(3), e12387.
<https://doi.org/10.1111/desc.12387>
- Southgate, V. (2024). The origins and emergence of self-representation. *Annual Review of Developmental Psychology*, 6.
<https://doi.org/10.1146/annurev-devpsych-120621-025747>
- Szumilas, M. (2010). Explaining odds ratios. *Journal of the Canadi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9(3), 227.
- Taumoepeau, M., & Ruffman, T. (2016). Self-awareness moderates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mental state language about desires and children's mental state vocabular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44, 114-129.
<https://doi.org/10.1016/j.jecp.2015.11.012>
- Waugh, W. E., & Brownell, C. A. (2015). Development of body-part vocabulary in toddlers in relation to self-understanding.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5(7), 1166-1179.
<https://doi.org/10.1080/03004430.2014.983915>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arly Self-Recognition in Korean Toddlers: Mirror Self-Recognition and Body-Based Self-Recognition

Minji Kim¹ Youngon Choi²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Master's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²

Self-recognition, the ability to understand oneself as an entity distinct from the environment, is considered a major milestone in human development. This study re-examined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early self-recognition in Korean infants within current sociocultural contexts, investigating both independent and relational self-recognition. One hundred four infants aged 15-26 months completed mirror self-recognition tasks assessing autonomous self-recognition and Cart self-recognition tasks (Body-as-Obstacle tasks) assessing relational self-recognition between body and objects. Results showed that success rates increased with age on both tasks, with most infants succeeding after 24 months. Success rates for mirror self-recognition were higher than for cart tasks. Unlike Korean infants in the early 2000s, the current sample demonstrated relatively high mirror self-recognition success from 15-17 months onward, exhibiting patterns more similar to those of North American infa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arly self-recognition in Korean infants is emerging more rapidly than in the past, a phenomenon likely associated with sociocultural changes in Korea.

Keywords : Self-Recognition, Autonomous Self, Related Self, Development, Sociocultural influence